

第269回國會 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9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10月12日(金)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간사선임

審査된案件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
-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
-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제8차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그냥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바로 목전에 다가온 대통령선거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화급을 다투는 사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달리하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관련 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만, 시급한 사안이 되어서 부득이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위원장 이상배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입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의사진행하시겠어요?

윤호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간사 선임을 하려면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안경률 위원 간사 선임이 되어야 회의가 되지……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 간사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남원희 의결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대통합신당 간사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선출이 안 된 상태이지요?

○윤호중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빨리 좀 간사, 간사 없는 특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간사가 빨리 좀 대통합신당에서……

○윤호중 위원 전체회의가 합의로 열려야 위원회에서 간사도 선출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장께서 각 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상임위를 운영하시고 또 지난 회의에서는 정치관계법을 직권상정까지 하셨습니다. 정치관계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거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안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협의 없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항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체회의에 오면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은 여야 양 당의 원내대표 간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다음 총선에서부터 허용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양당 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런 합의에 따라서 오늘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직권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지금 위원장님에 의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직권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권에 관한 개정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를 다루려면 제1소위를 열어서 그 문제를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다음에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1소위를 시급한 시일 내에 열어 주실 것을 위원장과 또 1소위 위원장이신 안경률 위원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다시 올라오려면 지금 현재 직권상정된 개정안과 동일한 안건 명으로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권상정된 개정안을 다시 소위로 회부를 해 주시면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로 된 여야 합의의 개정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다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현재 직권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소위를 빠른 시일 내에, 당장 지금 위원회를 정회하고 옆방에서 소위원회 열어주십시오. 바로 소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를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저도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저도……

○위원장 이상배 주성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윤호중 전 간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며칠 전에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재외국민대표 몇 분과 식사하는 자리의 기사가 실린 내용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효석 원내대표로부터 부랴부랴 정개특위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온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김효석 원내대표가, 지금 방청석에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장인 김승리 회장께서 와 앉아서 계시는데 '한나라당이 대통령후보 유고 시 선거연기법안과 패키지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을 연계시키고 있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나라당이 그것을 풀면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참석을 해서 1소위를 하자고 하시는데, 여기 배일도 위원님하고 정진섭 위원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노위에 의결정족수 채우러 잠시 올라갔습니다마는, 지금 열린우리당 의석에 1소위 위원 아무도 안 나와 계세요.

그다음에 직권상정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1·2·3 소위에서 여야 간에 이의 없이 합의되어서 표결이 됐던 내용만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직권상정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직권상정하는 절차는 열린우리당에서 어느 시점 이후로 소위든 전체회의든 응하지 않으니깐, 또 그 전체회의나 소위 소집을 화급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당이 경선일 때 했던 순서에 따라서 소집을 했는데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 합의된 내용 중에 김효석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후보 유고 시에 선거연기법안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한나라당이 1소위에서 장윤석, 저 그리고 안경률 간사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개특위가 7월 4일 출범했습니다. 9월 초까지 합의되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사보타지한게 바로 열린우리당이에요. 그리고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1소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1소위 위원들은 보이지도 않고……

○윤호중 위원 밖에 있지, 아까 왔었잖아요.

○**주성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신당이 출범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 간사 선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정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제가 나가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 단끼리의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또 우리 소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말이야……

아까 윤호중 전 간사께서 회의 전에 들어 오셨다 나가면서 ‘이상배 위원장 물러나라’고…… 그 게 말이지요,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은 그 당시 열당입니까? 신당입니까? 말기로 하고 또 우리가 말기로 한 거예요.

○**윤호중 위원**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어요.

○**주성영 위원** 바꾸라는 것이 물러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은 이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궁금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의사진행발언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박세환 위원** 저도 하도 기가 막혀서요.

○**위원장 이상배** 지금 기가 막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양형일 위원 말씀하세요.

○**양형일 위원** 이상배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가 막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송구스러움도 갖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의 전통, 이제까지 여야가 참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직권상정하시게 된 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박세환 위원** 소위에서 합의가 된 것인데……

○**양형일 위원** 물론 소위에서 합의되어진 것이라든……

○**박세환 위원**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위원장 이상배** 얘기 듣고 합시다.

○**양형일 위원** 얘기 듣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원만하게 이제까지 나름대로 2소위에서, 3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1소위에서, 아마 가장 민감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나라당 대선 일정도 있었고 또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이 겹쳐 가지고 이러저런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 사정이 있어서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제1소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 위원장님께서 이제 저희들도 조금 일정이, 15일 이후로 가면 시간에 있어서 융통성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지고 소위를 소집해 주시고 그 소위에서 정말 모양새 있게,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있다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셔서 전체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이게 크게 저희들끼리 줄다리기하고 다투야 되고 거기에 무슨 당리당락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런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만 좀 밟아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꽤나 오래 됐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만났을 때도, 벌써 1주일 전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경률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경률 위원** 그동안 1소위 위원장으로서 양형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신당의 원내대표께서 10월 8일 정말 사고를 쳤는데 어떤 사고냐,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회장 등 재외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재외국민의 내년 총선참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통령후보 유고 시 선거연기법안과 패키지로 묶고 있어서 사실상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발단입니다.

조금 전에 주성영 위원께서도 신랄하게 지적했지만 정치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기만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김효석 대표 발언을 보면 사실은 열린우리당, 통합민주신당 이렇게 이합집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사

보타지한 이런 잘못을 타당에다 뒤집어씌우는 이런 파렴치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관계 소위는 지난 7월, 8월 삼복더위 속에서 재외국민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노력해 왔고 또 기다리면서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치관계특위 제1소위가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안건에 대해서 1차 회의를 7월 23일에 하고 2차 회의 7월 31일, 4차 회의 8월 7일, 이렇게 세 차례 성원을 시켜서 논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합의를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기간 동안에 우리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 장운석 위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줄곧 ‘재외국민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속히 입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열린우리당 위원 일부가 ‘당의 입장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도입하는 것을 거의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속기록을 전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린우리당 당시에 1차, 4차 회의를 죽 이렇게 반대해 오더니 5차 회의가 언제부터 열렸느냐 하면, 8월 24일부터 5차 회의를 무산시키고 24일, 9월 6일, 9월 7일, 9월 10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회의를 무산시켜 왔고 최근에 와서 10월 2일, 10월 4일 이 정치관계특위가 소집된 전체회의에도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고 계속 사보타지를 하고 왔다, 그래서 대표가 말한 대통령후보 유고 시 선거연기법안은 7월 24일 열린 제1소위 2차 회의에서 여야 간에 이미 합의 처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대통령후보 유고 관련 법안과 재외국민선거권 관련 법안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김효석 원내대표가 선의로 해석해서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300만 재외동포들에게 너무 파렴치한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재외국민선거권 부여를 위해서 이번 12월 대선 때 적용을 하고 또 내년 총선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일부 수정해서 현실

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효석 대표는 지금 갑자기 나서서 내년 총선에 재외국민선거권을 적용하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막고 있다, 전혀 핑트가 맞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안을 호도하는 이런 원내대표, 정말 이것은 원내대표가 거짓말에 대해서 재외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사과해야 될 엄청난 일이다, 정말로 정치 도의가 없는 이런 막가는 막가파적인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물론 대선·총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는 부분은 이번 10월 11일에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대선부터 적용하자는 그런 주장을 죽 해 왔는데 전혀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위원** 신상발언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됐어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윤호중 위원** 신상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의 전에 있었던 제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배** 위원장을 물러가라는 소리는 안 했다는 거지요?

○**윤호중 위원**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배** 알았어요.

○**박세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그다음에 드릴게요.

○**윤호중 위원** 회의 전에 여당이 회의 진행에, 회의 운영에, 특위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고 회의를 계속 빠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라당 측에서.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그것도 소수인, 지금 한나라당이 9명입니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 위원 수가 8명이고. 그러니까 소수인 여당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9명으로 숫자가 많고 거기다가 위원장까지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닌 한나라당에서 맡고 계시

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영이, 이 특위의 운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면 위원장을 대통합민주신당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배 위원장님이 꼭 직권상정을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마침 안경률 위원님과 또 주성영 위원님께서 김효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김효석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전문 그대로 좀 아까 처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한 정치 지도자, 상대방 원내대표의 발언을 왜곡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의 취지를 제가 지금 듣고 해석하기에는 한나라당이 정치특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유를 살펴보니 그것은 후보자 사망 시 선거일 연기라고 하는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안을 전체회의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직권상정까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특위 자체가 파행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정상화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대통합민주신당이 재외국민투표권 인정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을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과까지……

○주성영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윤호중 위원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주성영 위원 옛날 했던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그래요?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안 돼요.

○윤호중 위원 위원장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토론에 들어가자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대체토론은 바로 직권상정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저희는 이 직권상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응할 수 없고 따라서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1소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 위원들이 성실히 참여해서 재외국민투표권 부여에 관한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환 위원 직권상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권상정, 직권상정 하면 어떻게 해요?

○배일도 위원 가 버리시면 얘기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윤호중 위원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재외국민투표권 문제를 전체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배 이봐, 여기 위원장 없어? 앉아 봐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요. 위원장 얘기는 듣고 가야 될 것 아니야? 위원장한테 얘기만 하고 그렇게……

○윤호중 위원 대체토론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배 얘기가 없잖아. 위원장 얘기를 들어야지.

○배일도 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앉아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상배 가고 싶으면 가요.

○배일도 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면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리고 합당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

○위원장 이상배 앉아 있어 봐요. 자, 배일도 위원 있어 봐요.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또 안건을 직권상정한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거 관계법은 각 교섭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각 정당에서 모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이 현재 제일 의석수가 많은 한나라당, 그다음에 지금 두 당으로 갈라져 있다 다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전부 한 분씩 다 우리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 룰이니까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 도출을 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행해야 된다,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보십시오. 그러면 한쪽에서는 전혀 선거법……

바빠서 그렇다고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월 5일부터 정치관계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150건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정치관계특위 위원들이. 7월 5일 이후에 열일곱 번 했어요, 1·2·3 소위원회를. 그리고 전체회의를 일곱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신 결과로 이제 대통령선거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적용할 그런 법은, 필요한 법은 개정을 하든지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한 한쪽 당사자가 합의한 뒤 조문 정리지요? 조문 정리를 위해서 마지막 회의를 놔두고 그때부터 합의사항이 합의된 게 아니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회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만 27건입니다. 이것만이라도 빨리 정치특위에서 의결을 하자, 그래서 모두 참석을 권유하고 하는데 모두 사정이 있어서 회의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빨리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가 가지고 본회의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촉박하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합의된 사항 27건만이라도 전체회의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의결하자, 이런 뜻에서 직권상정을 한 것입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외의 사항도 모든 사항이 우리 위원회 법은 공직선거법하고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상정 그 상태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체토론하면 결과는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수정도 하고 위원회 대안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항이,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소위원회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그다음에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정 의무 부과, 허위사실 공표 금지, 이런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빨리 소위원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두 소위원장, 한 분은 지금 안 계시

는데 안경률 소위원장, 윤호중 소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정치상황을 감안해서 16일이면 소위원회 되지요? 국감 전달이고 또 다른 정치 행사 건도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16일에 소위원회 세 분이 하셔 가지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합의 안 된 사항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관계,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계속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십시오.

16일에 1·2·3 소위원회를 하시고 또 소위원회 합의된 27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는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소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위원장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른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위원장이 할 일인데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위원장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털어 놓고 정말 여기도, 이 자리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명심하시고 우리 정치특위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위원님 각자에게 좀 호소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진행, 신상발언 다 했으니까 필요하다면 뭐 한두 분 토론을 하십시오.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토론하시기 전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한 말씀 더 해 봐요.

우리 윤호중 위원 지금 바쁘시다고, 또 다른 중요한 일도 있어서……

○**배일도 위원** 얼마나 국사에 바쁘시겠습니까. 저희도 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상임위 열어 놓고 또 여기 왔는데요.

아까 그 말씀을 중간에 들어서, 중간 후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세 차례 나와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정치관계법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반영되어야 될 게요, 예산과 관련되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다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이것 결론을 내 주어야 할 문제이다. 또 특히나 언론의 지탄을 양당 또는 다른 당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비경선제의 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많은 고소 고발 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2008년도 18대 국회 때부터 적용되어야 될 것, 또 대통령선거 때 적용되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시의성과 관련해서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볼 때 상정의 적법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형식이 갖추어져야 내용도 채워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더 이상 이 시의성 때문에 미루어서는 안 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것을 '직권상정'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특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하루 속히 우선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려면 간사가 뽑혀야 안 되겠습니까? 정당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쪽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간사를 뽑을 수 있는 조치를 그쪽 당에서 좀 취해 주셔야 나머지 할 얘기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원내대표라는 분들은 상임위원회나 특위의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원만한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인데 원내대표가 오히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 표현을 해서 왈가왈부한다, 이렇게 해서 특별 위원들이 일하는 데,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안건 처리하는 데,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분

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차피 의결은 할 수가 없으니가 윤호중 위원 바쁘시면 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슨 대체토론 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두 분 하시고요. 뭐 있습니까?

○**박세환 위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발언 해야지.

누가 하시겠어요?

박세환 위원 말씀하세요.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윤호중 위원** 대체토론이에요?

○**박세환 위원** 아니요, 대체토론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용어 선택에 좀 면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직권상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 정치개혁특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전체회의에 위원회 안이 상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기이 소위원회를 다 거쳐서, 또 소위원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여야 간에 합의되었던 내용을 조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은 어떤 절차가 생략되고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안들입니다. 이게 전체회의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상정된 것이지, 뭔가 어떤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이런 어감을 풍기는 직권상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지극히 의심스럽고요.

○**윤호중 위원** 답변을 드릴게요.

○**박세환 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치개혁특위가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특정 당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운영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 정신을 가지고 포장해서야 이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엄청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만 한 세 차례 정도 출석해 가지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이 출석하기를 기다리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모처럼 나오셔

가지고 얼굴을 뵈었는데 ‘직권상정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일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오히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애당초 이것 7월에 출발조차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공명선거 의지를 선거법에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글썽 이게 정치선거법에 대해서 오히려 특정 어떤 당이 대선에 너무 승산이 없으니 다른 당에 잔칫상을 차려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으면서 운영에 너무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상대방 당에다가 그것을 뒤집어씌우는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발언은 정말 참 듣기가 너무 민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김기현 위원** 1인당 발언시간으로……

○**윤호중 위원** 한 말씀만…… 아니, 이것 뭐 1 대 8로 하니까……

○**주성영 위원** 윤 위원님, 누가 1 대 8로 하래? 누가 1 대 8로 하라고 했느냐 말이야.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면 좀 데리고 와요, 사람을 좀 데리고 와. 위원을 데리고 와요.

○**주성영 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 왜 1 대 8이냐고, 8 대 8로 하지.

○**위원장 이상배** 자, 그러면 오늘 회의를……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관계관들 와 계시고……

○**주성영 위원** 벌써 다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제3자가.

○**위원장 이상배** 또 방청하러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윤호중 위원** 직권상정은, 법률가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이상배**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반드시 양쪽 모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경률 간사님하고, 우리 윤호중 위원이 지금 사실상 간사지요?

○**윤호중 위원** 예,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는

데요. 전체회의 소집할 때, 물론 제가 간사로 선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정자라고 하면…… 또 일방적이라는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위원님들 이름만 죽 적어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시지 말고 여야 간에 일정을 협의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배** 그래, 소집요구서 낼 때 교섭단체, 대통합신당하고 한나라당, 한나라당하고 대통합신당 서로 섞어서 소집요구를 하세요.

○**박세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선임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상배** 간사 선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입법조사관 남원희** 의결이 안 됩니다.

○**박세환 위원** 간사 선임이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까지도 뭐……

○**윤호중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소집이 되고 직권상정이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못 나오구요.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위원장 이상배**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 기 현	김 정 훈	박 세 환	배 일 도
안 경 룰	양 형 일	윤 호 중	이 상 배
이 인 영	정 진 섭	주 성 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장 인 식
전 문 위 원	백 환 기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무 총 장	조 영 식
법 제 실 장	이 중 우